

## <내 이름은 김삼순>의 재미요소와 이데올로기적 함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정영희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강사)

1. 서론
2. 이론적 논의
  - 1) 수용자 연구전통
  - 2) 텔레비전 드라마와 리얼리티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텍스트분석
  - 1) 등장 인물
  - 2) 인물간의 갈등 및 이야기 전개
    - (1) 인물간의 갈등
    - (2) 인물에 대해진 대립적 가치
    - (3) 이야기 전개
5. 수용자 분석
  - 1) 현실감을 통한 공감
    - (1) 캐릭터의 현실성
    - (2) 이야기 전개의 현실감
    - (3) 에피소드의 현실성
  - 2) 맥락화된 일상언어의 채감
  - 3) 탈경계성, 뒤섞임: 장르·감성·이념
    - (1) 멜로와 코믹성
    - (2) 트렌디의 감성과 홈드라마
    - (3) 여성적 환타지와 남성적 질서
  - 4) 패러디, 상호텍스트성
6. 이데올로기적 함의
7. 결론

## 1. 서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대중문화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 및 그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대중문화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전파함으로써 왜곡된 성역할과 성의 불평등한 구조를 지속화시키는 주된 도구라고 비판받아왔다. 그 중 텔레비전 드라마는 대표적인 여성장르로 인식되며 가부장적 관념을 확대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텍스트로 인식되었다.

1970년 ‘아씨’의 성공 이후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인내하고 순종하는 여인상’이 지배하다가, 1980년대 들어와서는 근면하고 성실하며 억척같은 여성상이 한동안 드라마의 여주인공 자리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야 가부장적 관념에서 볼 때 일탈적인 여성들이 드라마의 주요인물로 등장하였지만,<sup>1)</sup> 가부장적 질서 속의 이상적 여성이미지와 대조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의 생산에 기여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젊은 층을 겨냥한 트렌디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신데렐라’ 혹은 ‘캔디렐라’라고 불리는 왕자님을 기다리는 예쁘고 순종적인 여성캐릭터가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텔레비전 드라마는 남성적 질서속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왔다. 그러한 흐름에서 1994년 방영된 <종합병원>은 탈가부장적인 여성캐릭터를 만들어 이전과는 다른 텔레비전 드라마로 평가받기도 하였다.<sup>2)</sup>

2005년, 드라마의 여성캐릭터에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난 듯하다. 2005년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방영된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삼순’은 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노처녀로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욕망을 당당하게 표현한다. 술과 담배를 꺼리지 않고 성욕구의 표현과 상말에 거침없는 여성, 남성과 사회앞에서 당당한 여성캐릭터의 설정은 가부장적 가치관이 여전히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 여주인공 ‘삼순’을 대부분의 매체들은 <종합병원>의 여주인공 만큼이나 파격적이고 새로운 캐릭터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며, 인물의 신선함은 드라마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곤 하였다. 물론 여성이미지만 변화한 것은 아니다. 남성도 ‘메트로 섹슈얼’이나 ‘꽃미남’을 넘어서 최근에는 여성처럼 단장하는 ‘크로스 섹슈얼(cross-sexual)’이 대중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고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아기자기한 ‘꽃미남’들이 마초적인 남성들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으며, 남성상과 여성상의 변화는 남녀간의 관계로까지 확장되어 이 시대 여성은 이제 남성과의 관계에서 ‘누나’가 되고 있는 듯하다.

<내 이름은 김삼순>도 남자 주인공은 스물 일곱 살, 여자는 서른 살로 연상-연하커플의 사랑을 다루었다. 사실 연상-연하 커플은 대중문화물에서 새삼스럽지 않으며, 30대 미혼 여성이 주인공인 것도 낯설지는 않다. 그러나 그동안 드라마에서는 30대 여성을 대부분 결혼하고 싶어 안달하는 노처녀 혹은 결혼 자체에 부정적인 뼈뺀 캐릭터로 묘사해왔다. 아니면 여성적 미덕을 고루 갖추고 있어서 지고지순한 사랑의 조력자를 만나 인생이 수월하게

1) 1987년 KBS2-TV에서 방영된 <에境的 조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로된 욕망을 위해 남성에게 힘을 행사하고 경복을 시도하며 가부장적 가치와 권력에 도전하는 여성(황신혜 분)은 결국은 과멸하게 된다는 내용의 이 드라마에서는 화려하고 적극적인 여성을 인내하고 순종적인 여성(김희애 분)과 비교하면서 지속적인 배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다.

2) 그러나 김용숙(1995)은 페미니즘적 여성상으로 부각된 <종합병원>의 여주인공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서는 벗어난 듯이 보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여성다움’의 틀에 갇혀있다는 점에서 의사-페미니즘(pseudo-feminism)을 보여준 뿐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종합병원>이 페미니즘과 여성해방의 메시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폐쇄공간으로 남아있다고 평가하였다.

풀려가는 ‘신데렐라’나 ‘캔디들’이었다. <내 이름은 김삼순>은 이 점에서 독특성을 가진다. 가부장적 관념 속의 이상적인 여성도 아니고 배운 것이나 가진 것이 특별하지도 않지만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자립적인,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기 드문 몸과 마음이 건

강한 30대 여성 캐릭터이다. <내 이름은 김삼순>은 기존의 드라마와 다르게 인식하는 데는 그치지 않고, 대중문화에서 ‘대중적 성공’이란 것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다. 드라마가 여성적 관점의 드라마로 인식되어 진부한 신데렐라 드라마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다. <내 이름은 김삼순>은 시청율을 기준으로 보면 2005년 방송3사의 텔레비전 드라마 중에서 가장 성공한 드라마이며,<sup>3)</sup> 드라마에 대한 주된 비판요소인 비현실성 논란과 신데렐라 스토리의 오명을 동시에 극복하였다.

이 연구는 <내 이름은 김삼순>의 상업적 성공을 가능하게 한 ‘재미요소’를 살펴보고 드라마의 이러한 대중성에 내재한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내 이름은 김삼순>이 높은 시청율을 보인 이후, 사회와 매체는 ‘김삼순 선발대회’<sup>4)</sup> ‘김삼순 따라하기’ 등 그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며 드라마의 성공원인으로 김삼순 캐릭터를 지나치게 강조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실패한 몇몇의 드라마를 통해 그러한 캐릭터의 등장 자체가 상업적 성공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의 드라마가 성공하려면 드라마 내·외적인 다양한 요소들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 중 텍스트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등장인물과 갈등요소, 갈등관계에 내재한 대립적 가치, 갈등이 조정되는 방식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용자 분석을 통해서 그러한 인물설정, 갈등관계 및 결말 등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및 이 드라마의 독특성과 재미요소를 분석하였으며 상업적 성공을 통해 확인된 대중성의 이면에 남겨진 이데올로기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 2. 이론적 논의

### 1) 수용자 연구의 전통

텔레비전 드라마의 수용연구전통은 지배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주장하는 흐름과 능동적 수용자론을 주장하는 전통으로 나뉘어진다. 해계모니론을 중심으로 발전한 지배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주장과 반대로 능동적 수용자론은 미디어 텍스트의 다의성을 이론적 자원으로 끌어들이며 미디어 텍스트 해독에 있어서 수용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피스크(Fiske, 1986, 1987)는 대중매체의 텍스트들 특히 텔레비전 텍스트는 그 상업적 특성으로 인해 다의적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텍스트의 다의성은 수용자들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의미들을 생산하도록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텍스트의 다의성 때문에 수용자가 텍스트의 선호되고 지배적인 해독을 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 피스크는 수용자들이 얻는 ‘즐거움’의 저항성을 강조했다. 이 ‘즐거움’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즐거움을 말하며, 이것은 수용자들의 담론적 능력보다는 텍스트 내부의 다의적 성격에 의존하며 미디어 텍스트 안에 내재된 지배적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해독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능동적 수용자론은 미디어 텍스트나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용자의 힘을 일반화하고 예찬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받아왔다(Carriage, 1990, 1996; Condit, 1989; Lewis,

3) 종영당시 <내 이름은 김삼순>의 시청율은 53.%(TNS미디어코리아, 수도권기준)였다

1991 1994; Morley, 1992, 1993; O’shea, 1989; Schudson, 1987).

국내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이데올로기성에 대한 분석의 대부분은 수용자의 능동성과 저항성을 과신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나미수(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의 민속지학

적 수용연구는 인식과 능동적 수용자로 혹은 인식생활 속의 능동적 실천으로만 수용자의 능력이 기인하고 있으며, 학제생전에서 ‘수용자의 능동성’이 과장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논문은 소수에 불과하다.<sup>4)</sup> 이 연구 또한 능동적 수용자론에 대한 진지한 성찰에서 출발하였으며, 드라마평가나 인식에 있어서 성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도 함께 고찰하였다. 드라마의 수용·해독에서 성차를 분석한 것은 김선남·원용진·정현욱(2005)의 연구와 양정혜(2002, 293쪽)의 연구가 있다. <여인천하>를 분석한 양정혜의 연구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과, 차이에 관계없이 지배적 가치관에 의존해 선호해독이 발생하는 영역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해독양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권력관계에 대한 가치판단의 경우 성별이나 담론자원과 무관하게 선호해독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이데올로기 영역에서는 수용자들이 텍스트가 선호하는 의미를 당연한 것 혹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이는 텍스트가 진공상태의 수용자에게 특정한 의미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내포되어있는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수용자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지배적 가치관과 호응한 결과라고 말한다.

### 2) 텔레비전 드라마와 리얼리티

텔레비전은 있는 그대로의 영상을 전달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대중문화물 중에서도 수용자의 일상적 리듬과 같이 하며 실제적 현실감을 생산해 왔다. 따라서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은 사실적으로 여겨질수록 더욱 신뢰를 받으며, 이것은 상업적 성공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성공에서는 현실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시청자들이 리얼리티를 인식하는 차원은 다양하다.

이엔 앙(Ang, 1985)은 텔레비전이 전달하는 리얼리즘을 감정적 리얼리즘(emotional realism)과 경험적 리얼리즘으로 구분하며, 감정적 리얼리즘이 드라마 즐거움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전개되는 사건이 사실과 다르고 때로는 과장이 심하고 황당할지라도 그것이 ‘감정적 진솔함’을 느끼게 할 때 즐거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감정적 진솔함’을 느끼는 즐거움이란 여성수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체험하는 ‘정서구조(structure of feeling)’를 극 속에서 확인할 때 발생하는 즐거움을 말한다. 앙은 <달라스>의 정서구조를 ‘비극의 정서구조’라고 명명하며, 여성수용자들은 그들의 실생활의 비극적 정서구조를 달라스에서 확인하는데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앙에 의하면 이러한 즐거움이 정치적으로 좋은 지 나쁜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즐거움이 급진적 정치행위와 의식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즐거움과 멜로적 환상은 최소한 삶을 유쾌하고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주는데 기여한다(p. 72-78).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여성 수용자들은 ‘삼순’의 일탈적 행동(술, 담배, 상팔 등)에서 느끼는 것은 기존의 남성중심의 질서, 도덕, 가치 등의 위안으로부터 야기되는 저항적 즐거움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수용자들은 삼순의 그러한 행동보다는 그녀의 감정적

4) 나미수는 양정혜(2002)와 이요현(2002a/2002b)을 예로 들고 있으며, 이 논문들은 수용자의 힘이 한계지어지는 방식을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흐름에서 더 큰 재미요소를 발견하고 있었다.

###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내 이름은 김삼순>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한 재미요소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텍스트의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분석을 위해서 2005년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16회 방영된 <내 이름은 김삼순>을 미디어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텍스트 분석은 드라마의 등장인물과 인물간의 관계 및 줄거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인물의 특성과 인물간의 관계구조, 갈등관계의 인물을 통해 본 대립된 가치 등에 초점을 두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등장인물에 대한 소감과 드라마의 에피소드에 대한 느낌을 적어내었다. 첫 번째 감상문을 참고하여 둘째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과 응답을 유도하였다. 둘째 주에는 7, 10회를 공동시청하고 8, 9, 11, 12회를 개별시청하게 하였으며 등장인물 및 인물들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와 드라마의 재미요소를 실제 경험담과 사적 감정을 섞어 표현할 것을 지시하였다. 셋째 주에는 13, 16회를 공동시청하였고 11, 12, 14, 15회를 개별적으로 시청하게 하였으며 등장인물들의 성격함과 그것에 대한 인식을 기술하도록 하였다.<sup>7)</sup>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1주일 정도 시간여유를 두고 <내 이름은 김삼순>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기술하게 하였다.

그리고 드라마의 지배적인 의미에 대한 수용자 인식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수용자 분석자료는 민족지학적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의 하나인 감상문쓰기를 통해 수집하였다. 민족지학과 같은 질적인 연구방식의 강점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상황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나미수, 2005, 70쪽).

수용자 분석자료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5명으로부터 수집하였다. 분석대상자는 인문사회계열 15명, 자연계열 10명이며, 성별로는 남학생 13명, 여학생 12명이다. 학년은 1~4학년까지 고르며, 연령은 21세에서 29세에 이르나 다수가 21~24세(72%)였다. 이 학생들에게 2005년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방영된 <내 이름은 김삼순>을 드라마 홈페이지의 '다시보기'를 통해 보여주었다. 2005년 12월 26일부터 2006년 1월 20일까지 4주에 걸쳐 드라마를 공동시청하거나 개별시청하게 하여 감상문을 제출하게 하였다.<sup>8)</sup> 수용분석을 위해 소집단 인터뷰와 개별 심층인터뷰 등도 고려하였으나 연구자 혹은 다른 인터뷰 대상자의 식한 분석적이고 평가적인 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대한 보다 진솔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감상문 형식을 선택하였다. 이 감상문은 4번에 걸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sup>9)</sup> 그 결과 총 100개의 분석자료를 얻었다.

첫째 주에는 1, 4회를 공동시청하고 2,3,5,6회를 개별적으로 시청하게 한 후 시청소감을

5) 시청자의 감상문을 분석한 사례는 이연 앙(Ang, 1985)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앙는 여성지 광고를 통해 수집한 여성시청자들의 감상문 형태의 편지 42개(이름을 근거할 때 이 중 3개는 남성의 것으로 추정된다)를 분석하여 <달라스 Dallas>의 대중적인 인기와 수용자의 해독관계를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앙는 그 편지들을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혹은 비선호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담론 및 텍스트로 간주하고 '경우적으로 symptomatically' 읽어내었다(Ang, pp. 10~12). 국내에서는 박명진(1992)이 여성월간지와 주간지에 광고를 실어 시청자들의 감상문을 받아 분석한 바 있다.

6) 질적인 연구는 맥락 뿐 아니라 응답자의 주관적 감정 혹은 정서 또한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응답자의 일시적인 감정이나 혼란에 의해 자료의 신뢰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일시

### 1) 등장 인물

(1) 김삼순(30세, 고졸, 파티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 파티쉐로, 하지도 않은 서른살의 미혼여성이다. 자수인공을 만났으며 혼자만 사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이다. 이러한 소통력으로 실어증에 걸린 문을 트게 하였다. 술과 담배를 먹지 않는 점에서는 탈가부장적 구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자 친구의 과거와 상처를 보듬어 남자친구에 실연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 남성질서에 편협함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모순적 감을 확보해주고 있다.

(2) 현진현(27세, 대졸, 프랜차이즈 카페)  
27세의 잘생긴 프랜치 카페 주인공 삼순과 옛 여자친구인 장의 외아들로 부유하고 거칠고 의 이별 동으로 심리적 외상

삼순과의 관계가 전전

7) 현진, 삼순  
하였다.

(3) 유희진(27세, 의대생)

의사부부의 외동딸이로, 세련된 옷차림과 화장을 할 줄 아는 선하고 이지적인 여성이다.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온화하고 순종적이다. 진현과는 고3때부터 6년간 사귀 사이이며 진현이 교통사고를 당한 즈음에 본인에게도 심각한 병이 있음을 알고 진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진현의 사랑을 믿고 그의 곁을 떠났었다. 그러나 치료를 마쳐지도 못하고 돌아왔지만 삼순과 자신사이에서 갈등하는 진현을 안타깝게 바라보아야 했다. 진현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삼순에게 독하지도 못한 온유한 여성으로 진현이 돌아와 주기만을 기다린다. 또한 큰 아들을 잃은 나역사(진현의 모)가 아픈 며느리감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알고 나역사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주치의 헨리킴의 사랑을 알지만 진현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4) 헨리킴(30대 중반, 의사, 입양아출신의 한국계미국인)

희진의 주치의로 희진을 사이에 두고 진현과 은근히 경쟁하고 있다. 두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한국말은 전혀 못하지만 희진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으며 어머니의 모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서양의 합리적이고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침착하고 느그롭다. 희진을 사랑하지만 그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배려한다. 억압적이거나 강요하지는 않지만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는 자상한 가부장적 인물로 볼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헨리킴이 진현보다 더 신데렐라의 왕자님에 가깝다.

(5) 기타 인물

· 김이영(31세, 삼순이 둘째언니)

삼순의 이혼한 언니로 외모와 학력에서 삼순보다 뛰어나다. 28살에 결혼하여 남편 따라 미국으로 갔다가 이혼하고 귀국한다. 결혼과 연애에 차이를 두며 성에 대해 패배적이지 않다. 삼순이 일하는 레스토랑의 남자 지배인과의 '하룻밤'이후 결혼하자는 그에게 '후지다'며 편견을 준다.

· 현무(30대 초반, 레스토랑 chef)

삼순이 일하는 프렌치 레스토랑의 총지배인이며 30대의 이혼남으로 마초적 인물이다. 티격거리며 만난 이영과 하룻밤을 보낸 후 결혼하자고 매달리기도 하며 드라마의 감초역할을 한다. 현무-이영의 '하룻밤과 봉사비'사건으로 드라마와 성도며 논란을 일으켰다.8)

· 박봉숙(53세, 김삼순의 엄마)

남편을 잃은 여성의 쓸쓸함 보다는 딸들의 엄마로서의 씩씩함이 묻어난다. 시장에서 일을 두고 있으며 생활에 적극적이다. 돈 앞에 기죽는 법이 없으며 진현과 나역사 모두에게 당당하다. 남편이 서준 빚보증이 문제가 되어 집이 날라 갈 판이지만 5,000만원 때문에 삼순이가 진현에 당하는 꼴은 절대 참지 못한다.

· 나현숙(50대 후반, 현진현의 엄마)

8) 연출자 김윤철 PD는 가부장적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현무'를 설정하였으며, 드라마의 캐릭터 구축에서 기존의 도식성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와 함께, 30대 이상 한국남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현무를 의도적으로 설정하였다고 말했다(2005년 10월 2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의 작은 토론회에서).

강남에 소재한 특급호텔의 소유주이며 경영자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기 보다는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엄마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이다. 진현이를 빨리 결혼시켜 손녀 미주도 말기고 호텔경영도 말기고 싶지만,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터라 아픈 회진이가 꺼려진다. 그렇지만 삼순이도 마땅치 않다.

## 2) 인물간의 갈등 및 이야기 전개

### (1) 인물간의 갈등

#### ① 이성간의 갈등

- 삼순- 진현
- 진현- 희진

#### ② 동성간의 갈등

- 삼순 - 희진
- 진현 - 헨리킴

#### ③ 기타

- 삼순- 진현 모
- 희진- 진현 모

### (2) 주요인물에 내재한 대립적 가치

김삼순	유희진
평범한/수두분한/포근함/적극적/현실적/솔직한 표현/건강함/현실주의자, 독립적/거칠고 중성적인 언동/선택->현실적인 캐릭터. 가부장적 통념에 배치되는 언동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 가부장적 질서내의 여성적인 특성을 가짐	이지적/깔끔한/온유함/수동적/이상적/세련된 언동/유약함/사랑지상주의, 순정적, 남성의존적/부드럽고 감성적인 여성적 기질/지고지순/선택->이상적 캐릭터. 외모의 현대적 이미지와 달리 정서적으로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여성상
현진현	헨리킴
고약함/고집/지고지순/여성화/자기중심적/감성적->심리적 외상을 가지고 모성본능을 자극하는 인물	온유함/자상함/느그름/부드러움/배려/합리적, 이성적->억압적이지 않은 가부장적 남성. 여성에게 호감을 주는 인물

### (3) 이야기 전개

크리스마스 전날 호텔에서 남자친구의 배신을 목격한 여주인공 '김삼순'은 어머니의 강요에 맞선을 보고 있던 남자주인공 '진현'과 처음 만났다. 실연당하고 울어서 얼룩진 마스크라에 코르셋을 벗느라 반쯤 벗어젖힌 블라우스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부딪힌 첫만남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급하게 파티쉐가 필요했던 '진현'과 직장이 필요했던 '삼순'의 필요에 의해 인연이 시작되었다.....

## 5. 수용자 분석

수용자들의 다수는 <내 이름은 김삼순>을 독특한 캐릭터와 감칠맛나는 대사, 사실적인 상황설정 등을 통해 도식성의 한계가 극복된 새로운 드라마로 인식하고 있었다. 새로운 드라마로 인식하는 이유로는 드라마가 전달하는 ‘현실감’을 들고 있으며, 드라마가 재미있었던 이유로 이 현실감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었다. 남녀 모두 이 드라마가 ‘현실적’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현실감을 인식하는 구체적인 요소가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학생들은 드라마의 상황설정, 에피소드가 매우 현실적이라고 말했으며, 여학생들은 주인공의 캐릭터와 여주인공이 연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감정의 흐름이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수용자들이 말하는 또 다른 재미요소는 언어적 영역에서 발견되었다. 등장 인물들이 사용하는 맥락화된 일상용어가 수용자들에게 친근감과 공감, 일종의 해방감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었다. 특히 ‘삼순’이 특수한 맥락에서 던지는 비어나 속어, 무심한 듯 내뱉는 혼잣말에서 수용자들은 일상성의 친근감과 현실감을 경험하며, 때로는 대리만족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드라마의 장르, 전달하는 감성 및 이념에서의 탈경계성도 수용자들의 재미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탈경계성과 관련해서는 진지한 멜로와 코미 드라마의 경계함을 적절하게 섞어둔 장르적 특성, 트렌디 드라마의 환타지와 홈드라마의 포근함이 섞여있는 감성, 남성적 질서와 여성적 요구의 화해 등에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의 패러디적 요소에서 수용자들의 재미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내 이름은 김삼순>은 먼저 방영되었던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 등을 패러디의 대상으로 삼았다. <파리의 연인><신입사원><굳세어라 금순아> 등의 드라마와 <X맨> <웃음을 찾는 사람들> 등 다양한 텍스트가 인용되었고, 기존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들이 그대로 인용되기도 하였다.

### 1) 현실감을 통한 공감

영상 매체로서의 텔레비전은 실제 세계를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다. 뿐 만 아니라 텔레비전의 전자적 성질은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이야기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감’(Zettle, 1981)을 만들어냄으로써 텔레비전 리얼리즘의 기초를 제공하며 이러한 특성은 텔레비전을 사실적인 매체로 인식하게 하였다(김훈순, 1999). 따라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사실적으로 여겨질수록 더욱 믿을 만하다고 인식되며, 이것이 종종 상업적 성공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과 리얼리즘 논의는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개연성과 실제 세계에 대한 지시내용과 관련된 리얼리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후자는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이 추구하는 과제라면 전자는 주로 텔레비전 드라마가 추구하는 과제이다(김훈순, 같은 글). <내 이름은 김삼순>이 시청자들의 감정이입과 공감을 만들어내고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캐릭터와 상황설정에서의 개연성이 많은 부분 기여하고 있었다. 이 드라마는 현실에서 만날 법한 자연스러운 캐릭터, 개연성있는 상황설정과 일상생활용어에 가까운 대사가 전달하는 공감력과 쾌감, 몸짱이나 다이어트 등 부절할 수 없는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다른 드라마보다 더 사실적이라고 믿도록 만들었다.

수용자들은 드라마가 재미있었던 이유로 드라마에서 느껴지는 현실감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그 ‘현실감’은 등장인물, 스토리 전개, 에피소드 등 3가지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었다. 드라마가 ‘현실적’이라는 데는 남녀 모두 동의하지만 그 현실감을 인식하는 차원은 성별로 차

이를 보인 점이 흥미로웠다. 여학생들은 ‘삼순이’ 캐릭터와 주인공의 감정적 흐름이 지극히 현실적이며 따라서 감정이입이 쉬웠고 강한 동류의식과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 반면, 남학생들은 동일시 할 수 있는 인물은 부재하지만 순간순간의 에피소드에서 강한 현실감을 인식하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삼순이’ 캐릭터가 실제의 생활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현실적’이고 존재별인 ‘진현’과 옛애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점과 진현의 선택은 비현실적이라고 인식하지만, 후자가 이 드라마의 현실적이라고 인식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 듯 하였다. 남학생들은 등장인물과 이야기 전개는 매우 비현실적이지만, 에피소드가 주는 현실감을 통해 공감과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요약하면, 여학생들은 인물과 감정적인 차원에서 드라마의 현실성을 인식하고, 남학생들은 상황설정에서 현실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여학생은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남학생은 상황과의 동일시를 통해 현실감을 인식하였다.

#### (1) 캐릭터의 현실성 : 평범한 외모와 내면의 모순성, 감정

여성 수용자들이 드라마가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데는 여주인공 캐릭터의 현실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수용자들은 현실에 있을 법한 개연적 인물에 스스로를 동일시 하고 깊은 공감을 나타내었다. 캐릭터의 현실감은 크게 주인공의 외모, 내면의 모순성 및 억지적이지 않은 감정처리 등에서 지적되었다.

우선 촉 늘어진 셔츠에 절끈 묶은 머리, 화장끼 없는 얼굴, 대충입은 반바지와 약간은 퍼진 몸매 등 의상과 메이크업에서 현실감을 느끼고 있었다. 수용자들의 실제모습과의 유사성을 도입한 표현의 리얼리티에서 수용자들은 실제 일상에서 자신 모습의 한 면을 찾기도 하였으며, 이것은 동일시 유발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덜덜하고 가식없는 그녀의 모습에 잠시 드라마가 아닌 실존인물을 닮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착각마저 일게 하였다’(22세, 여)

‘...행동이 자연스럽다. 현실에서 내가 본 인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물이다’(24세, 여)

‘TV에서 표현되는 삼순이는 솔직하다. 삼순이의 행동과 표현이 솔직하다....실제로 주변에 삼순이 같은 성격이 많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생각하는 방식, 행동 등에서 많이 다’(24세, 여)

다음은 남성적 질서의 억압을 비판하고 거부하지만, 그 질서 속의 편입 욕구를 과감하게 버리지도 못하는 캐릭터의 모순성에서 현실감을 느끼고 있었다. 삼순이의 다이어트 노력은 현실사회의 다이어트·몸짱 열풍과 맞물려서 사회적인 현실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삼순’은 신데렐라의 조건과는 거리가 멀고, 가부장적 질서속의 여성이미지에 집착하지 않으며 자신의 욕망을 당당하게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이어트의 강박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9) 남학생들은 ‘진현’이 ‘삼순’을 선택하는 결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말한다. 자신이라면 절대 ‘삼순’이 같이 ‘기일이 셋’여자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그런 선택을 할 일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한귀은(2005, 213쪽)은 이 모순이 김삼순의 인물로서의 진실성(reality)을 확보해준다고 주장한다. 반가부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질서로의 편입을 버리지 못하는 모순적인 이미지는 시청자들이 ‘편집된 현실’을 ‘실제 현실’로 받아들이게 만든 하나의 장치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캐릭터의 모순성은 이 드라마가 일일연속극과 달리 장르 특성상 약간의 과장과 비현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 완전하게 공감하고 있는 ‘정서적 리얼리즘’을 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같은 글).

마지막으로, 실연을 당했을 때 심순이의 감정 표현과 변화에서 현실감을 느끼고 있었다. 옛애인에게 차이면서도 당당하게 따지기 보다는 “내가 싫어졌니?”를 묻는 그녀를 통해 ‘심순’을 정서적으로 주변에서 실제로 볼 수 있을만한 자연스러운 인물로 이해하고 강한 동류 의식을 표현하였으며, 그녀의 감정적 흐름에 쉽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의 현실과 가깝게 느껴질수록 드라마의 주인공에 공감하게 되고 몰입하게 된다...1회에서 사슴이 키시가 오케인 여인이 메라오 해오는 해자로 무지개 아래 드 브르헨나 다다르네 나기

라마에서는 항상 주변인물로 처리되어 왔다. 이 드라마는 그러한 인물을 중심화시켜 (여성) 시청자들로 하여금 '내 이야기'라는 느낌을 전달하여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정서적 관여를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는 달랐다. 남학생들은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없었으며, 따라서 공감이나 감정이입이도 없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현무’가 가장 현실적이며 공감이 가는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개성있는 캐릭터가 넘쳐나는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내가 “아~ 저 사람은 꼭 나와 같다”라고 생각한 캐릭터는 없는 듯하다. 그래도 공감이 가는 이유는 역시 특이하고 어쩌면 내가 알고 싶은 캐릭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24세, 남)

‘내 이름은 김삼순’은 엄밀히 따져서 여성시청자 위주의 드라마인 것 같다는 생각을 불현 듯 하게 된다...여성시청자들이 봤을 때 보다는 덜 몰입하게 되는 것 같다...이번 드라마를 보

한편 심순이 이외의 인물들에 대해 수용자 대부분은 외모와 조건 등에서는 비현실적이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감정의 흐름에서는 ‘삼순’뿐 아니라 ‘희진’과 ‘진한’도 현실적이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여자사이에서 갈등하는 ‘진한’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희진’과 실연 ‘진한’의 상처와 새로운 사랑에 대한 두려움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다.

‘...드라마에 몰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 이유는...실제 나의 모습을 드라마 속의 삼순, 진현, 희진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삼순이의 말과 행동에서 “맞아 맞아..”라는 말을 연발하곤 하였다’(22세, 여)

‘동장인물들이 대부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21세, 여)

또한 기존 드라마에서 왕자님은 언제나 자상하고 완벽했지만 질투와 자존심이 부러져진 완전한 왕자 ‘진헌’의 모순적인 모습이 전달하는 친근감은 여성수용자로 하여금 ‘내게도 라는 환상을 가지게 하는 듯하다.

‘긴한의 행동은 참 억지스럽지만 인간미가 느껴지며 귀엽기까지 하다. 삼순을 보고 싶은 마음에 효력도 거의 없어진 계약을 들먹거리고 한밤중에 자전거를 가져가라고 가지 한다’(21세, 여)

무엇보다도 수용자들이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김삼순'이 이상적인 여  
미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 속의 다수 여성과 닮아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형적인 드라마 구조에서 보면 '삼순'은 주인공 주변의 분수께 넘치는 조연정도가 어울  
캐릭터이다. 말하자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평범한, 현실여성의 다수를 차지하는 인물상이

왔다. 남학생들의 대다수가 극의 줄거리에 공감하는 정도가 떨어졌다. 남학생들은 캐릭터 뿐 아니라 극의 줄거리에는 결코 공감할 수 없으면, 다만 상황적인 에피소드가 설득력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 (3) 에피소드의 현실성

에피소드의 현실성은 남학생들이 드라마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에피소드는 드라마 이야기 건계를 위한 에피소드, 삼순캐릭터의 현실성 확보를 위한 에피소드<sup>10)</sup>, 재미와 코믹함을 유발하기 위한 에피소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용자들의 실제환경에서 발생할 법한 사건들과 경험들을 배치하여 일상적 상황과의 유사성을 만들어내었다.<sup>11)</sup>

‘진현이와 삼순이는 우리처럼 먹고 웃으며 테이트한다...둘이 테이트를 할 때는 드라이브보다는 적거나 대중 교통일 때가 많았다’(28세, 남).

‘진헌’의 연락을 고대하는 ‘삼순’이 자기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의 핸드폰 소리였던 장면과, 문자알림소리에 기백하며 확인했더니 스팸메시지였던 장면 등은 전체 줄거리와는 무관한 상황적 에피소드가 제공하는 사실감은 자칫 비현실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전체 줄거리와 흐름에 상황적 개연성을 만들어주었다. 드라마 장면장면 돌출되는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은 시청자 각자의 실제현실경험의 맥락에서 의미를 생산해내며 공감할 수 있는 재미를 제공하였다.

‘드라마는 유쾌하다. 저절로 웃음이 나오게 한다. 이는 역시 현실적인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

$\sigma^2 = \frac{1}{n} \sum_{i=1}^n x_i^2 - (\bar{x})^2 = \frac{1}{n} \sum_{i=1}^n x_i^2 - \left( \frac{\sum_{i=1}^n x_i}{n} \right)^2$

평화, 통일, 경제발전을 앞장서 추진하여

요소였다. 사실감은 등장인물들의 사건들이 개연성을 가지는, 경험적 차원에서 닮아있는 정서적 사실은 외모나 조건에서 특별하지 않은 삼촌의 언어나 행동도 일상생각이지만 특별하지 않은 여성과 재발적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를 비�하는 오히려 '드라마는 매우 현실적' 되는 사건이 경험적 사실과 다르며 현실감을 느끼는 것 즉 '드라마적 진실함'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 속에서 확인할 때 흔히 발생한다.

양성자 수(21개)는 양성자 수(21개)와 양성자 수(21개)의 곱이다.

이 드라마는 다른 드라마에 비해 유난히 화장실 장면이 많았다. 전체 스토리와 무관한 화장실 장면은 '실제상황 보다 더 실제같은 과도한 리얼리티'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재미와 코믹함을 유발하였다.

한편 극 줄거리와 무관한 사실적인 에피소드와 대사 등으로 드라마의 리얼리티를 살리고 시청자들의 공감과 감정이입을 끌어내기도 하였다.

삼순이가 같이 케익을 만드는 여수 여성에게 “객지 생활을 하면 마음이 허해서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며 웬지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수년째 객지 생활을 해오고 있는 나는 그것을 보며 고향 생각이 간절했다(23세, 남)

이상으로 수용자들이 <내 이름은 김삼순>을 ‘현실적’이라고 인식한 내용은 캐릭터·이야기 전개·에피소드 등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분석상 3가지 차원을 구분하

10) 삼순의 모친이 삼순을 대하는 태도와 삼순이 혼자맞처럼 내뿜는 비속어, 삼순과 이영이 책을 하면서 주고 받는 일상생활용어는 에피소드의 현실감과 함께 캐릭터의 현실감을 전달해주고 있다.

11) 교통사고 후 진현이 윤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데이트 방식이 더 큰 현실감을 제공하고 있다.

였지만, 수용자들의 응답에서는 이 세 가지가 '정서적 리얼리즘'이라고 지칭 할 수 있는 것  
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있었다. 수용자들이 이 드라마에서 정서적 리얼리즘을 느낄 수 있었  
던 것은 드라마가 감성적 진실성을 담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감성적 진실성과 정서적 리얼리즘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 드라마에서는 단순한 낭만적인 사랑만이 아닌 그 낭만 속에 담겨있는 현실을 조금씩 담아내고 있었다'(21세, 여)

누구나 한번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팠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 의미가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 기쁘고 슬퍼하는 심순이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듯하였다(22세, 여)

“나도 드라마와 비슷한 경험을 막 마친 이후였다. 반년이나 사귀어오던 남자친구가 막 어학연수 마치고 외국에서 돌아온 건 여자친구에게 돌아왔던 것...덤이어 나오는 부인이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는 장면들...어느새 나도 무르게 삼삼이와 하나가 되어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었다...진현이 희천에게 돌아서 버린...난 마치 몇 달전에 내가 서있던 공간으로 돌아와 있는 듯한 착각을 받았다(23세, 여)

“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짐짓 모른 척하고 나를 속이곤 한다. 그러다 보면 사랑은 저만치 떠나가 버리던 아픈 경험을 많이 했었다. 기다리지만 할 게 아니라 자신의 걱정어린 마음을 담아 만든 밀피유와 죽을 담아 진헌에게 달려가던 모습은 나에게서는 그렇게 특별해보일 수 없었다.”(21세, 여)

남학생의 경우는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캐릭터가 부재하고 공감이나 감정이입이 발생하

42 2 1988

27-09-2016 08:19:19 AM

다' 남학생들에게만 설계한 결속의 다수여성들 닮아있을 뿐 아니라, 에피소드와 대사의 현실감이 공감의 중요한 처지나 환경이 현실세계와 외연적으로 닮아있고 벌어지는 적 차원의 사실감과 외연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적지만 감정 실감으로 나뉠 수 있다.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김삼순'은 현실속의 다수여성과 닮아있고, 특정한 상황에서 쏟아내 할 맥락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그렇 수군의 잘생긴 남성과의 로맨스는 설정자체가 매우 비현실 실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여학생들의 경우 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연 양(1985)은 이러한 현상을, 전개 며 과장되 심하고 황당해보일지라도 그 정서적 긴장함을 통해 리얼리즘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sup>12)</sup>, 박명진(1992)은 감 음은 시청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서구조를 연속극 고 지적했다.

만 진현이와 삼순이의 감정의 흐름은 많  
| 않았다.

12) '이 스토리가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감을 느끼게 한다'(28세, 남)라고 구체적으로 응답한 경우도 적지

- 16 -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정영희, 2005). 또한 이 드라마에서는 전통적인 선악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들간의 긴장과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남성’이라는 감정적 자원을 두고 극단적으로 경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삼순의 가족, 삼순과 희진, 나사장과 여비서 등의 관계에서는 여성적 연대 혹은 모계사회적 특성도 읽어낼 수 있었다.

#### 4) 패러디, 상호텍스트성

<내 이름은 김삼순>이 앞서 방영된 프로그램을 패러디 한 것도 드라마의 재미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패러디가 상업성이 검증된 것을 반복하여 재생산함으로써 상품의 위험성을 줄여준다고 할 지라도 타방송사 프로그램을 인용하거나 패러디 한 경우가 이전에는 없었다. 이 드라마는 <파리의 연인><신입사원><굳세어라 금순아> 등의 드라마와 <X맨> <웃음을 찾는 사람들>등의 오락프로그램과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여 그 프로그램의 시청환경을 더욱 친숙하게 만들었다.

이상으로 수용자들이 말하는 <내 이름은 김삼순>의 재미요소를 살펴보았다. <내 이름은 김삼순>은 실제의 우리 현실처럼 인지되는 드라마 리얼리티, 개연성 높은 사건의 배열, 시청자의 이상향을 잘 파악하여 대리만족을 제공하고 있었다. 캐릭터와 이야기 및 에피소드의 사실감을 통해 확보한 현실감을 신데렐라 스토리를 변형한 여성적 환타지와 적절하게 배치시켜, 서민적인 일상과 이상적 욕구를 잘 조화시켜놓았다. 극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진지함과 과장의 뒤섞임에서, 여성은 극의 감정적 흐름을 따른 감정이입과 공감이 가능하였고 남학생들은 코믹한 에피소드에서 재미와 쾌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드라마의 코믹성은 스토리의 큰줄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되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는 간단한 재미와 더불어 과장된 웃음 또한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여 시청자 모두 동일한 장면을 보고 몰입할 지라도 몰입과 재미의 원천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4)</sup>

#### 6. 이데올로기적 함의

감상문 형식의 응답에서 수용자들이 미디어 텍스트가 전달하는 가치나 이념에 대해 특별히 성찰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 안에서 어떤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짚어내거나 비판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성별에 관계없이 기존의 가부장적 관념 내에서 드라마를

14) '진현'이 최종적으로 선택하였지만 '삼순'의 성격, 거친 말투, 행동들을 탐탁찮게 여기는 '나사장'의 반대로 결함이 유보되었다는 점이 어떤 면에서는 '삼순'이 가부장적 질서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 불완전하게 편입되어있

이해 및 평가하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삼순이라는 과격적인 인물에 대해서 동류의식과 공감을 느끼고 그녀의 용감한 행동을 칭송하고 그녀를 이해하지만 그녀를 닮고 싶어하지는 않으며, 그들의 현실적 조건과 동경의 대상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도 '기갈이 세다', '기가 세다', '무슨 여자애가...'등등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삼순은 현실속의 나의 모습, 희진은...대리만족, 동경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21세, 여)

'나는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 주로 진현의 입장에서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 같다. 진현이를 평가한다기 보다는 진현이의 관점에서 삼순이를 보거나 희진을 보게 된다...나는 삼순이가 별로 마음에 안든다...너무 드세다. 절대 저는 범이 없다'(24세, 남)

텔레비전 드라마가 생산하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상업주의적인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거나 대항하는 능동적 수용자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수용자의 인식 속에서 기존의 지배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더 교묘하게 은폐 혹은 변형되어 재생산되고 있었다. 수용자들은 텍스트의 다의적 특성에 의해 저항적으로 해독하거나 텍스트 바깥의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배치되는 해독을 하기 보다는 지배적 가치관이 내재된 기존의 해석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양정혜(2002)는 수용자가 대안적 의미를 생산하기 보다는 지배적인 가치관이 내재된 기존의 해석들에 의존해 친숙한 의미들을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 점은 여학생들에게서 더 당하게 인지되고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 탈가부장적인 여자 주인공에게 공감하고 동류의식을 느끼며 그녀의 행동에서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때로는 여주인공에게서 수용자에게 내면화되어있는 가부장적 규범과 상충되는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불편해하였다. 연구결과와 수용자들의 정서 깊숙이 내재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말로만 듣던 외모지상주의를 피부로 체험하고 있다. 뭐 내가 빼어나게 예쁘다면야 싫을 이유가 없겠지만 그저 그런 평범한 얼굴의 소유자인 나로서는 이런 사회 모습에 분개하고 절망하고 바꿀 수 없음에 무력해 하곤 했었다.....외모에 자신이 없다고 객관적인 조건이 뛰어나지 못하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자신없어하는 것은 외모지상주의의 사회에 순응하는 것 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삼순이를 열광하며 보다보니 든다...나는 결코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속으로는 외모지상주의나 남성우월주의에 심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꾸기 힘들다는 것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21세, 여)

드라마가 재현하는 여자 캐릭터는 표피적으로는 다분히 탈-가부장적 혹은 반-가부장적 성격의 인물이다. 그러나 그 인물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남성위주의 사회질서의 한계를 넘어 서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몇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부분적 전복을 보여줌으로써 가부장적 질서의 약화나 붕괴, 여성의 권위와 주체성 회복에 대한 허위의를 생산하고 있다. 말하자

드라마 속 주인공은 현실 속의 여성을 대변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나 드라마 속 주인공은 현실 속의 여성을 대변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나 드라마 속 주인공은 현실 속의 여성을 대변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나 드라마 속 주인공은 현실 속의 여성을 대변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15) '진현'에 의해 선택되지는 못했지만 '헨리'라는 다.

16)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의 재미도와 공감도에 대해 정영희(2005)는 "남성은 순간적으로 주고 받는 농담은 함께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고 지적하였다(동아일보, 2006년 1월 13일 기사 '남성

- 김용숙(1995). 텔레비전 드라마<종합병원>의 담론분석. 《언론과 사회》 제7호, 130~161쪽.
- 김홍순(1999). 텔레비전 드라마와 신문 텍스트 담론. 『텔레비전 문화 연구』, 343~372쪽. 한나래.
- 김홍순·김명혜(1996).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부장적 서사전략. 《언론과 사회》 통권 7호, 130~161쪽.
- 나미수(2005). 민족지학적 수용자 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 『커뮤니케이션 이론』, 1권 2호, 68~105.
- 박명진(1992). 텔레비전 드라마가 생산하는 '즐거움'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 연구논총1』. 방송문화진흥회.
- 양정혜(2002). 성찰적 TV수용의 한계 : 남녀 집단간의 여인전하 해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16-1, 268~299쪽.
- 윤선희(2005).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역전지와 코라-페미니즘 정신분석학의 시각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다시 읽기. 『한국언론학보』, 49권 2호.
- 이오현(2002a). 텔레비전 드라마의 수용자연구: 다의성(polysemy)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 46-6호, 96~126.
- \_\_\_\_\_(2002b).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수용자의 힘과 그 한계 : 일일드라마<보고 또 보고>의 사례분석. 『한국방송학보』, 통권 16-4호, 206~245.
- 정영희(2005). 가부장적 질서와 페미니즘적 주장의 cohabitation: TV 드라마 <내이름은 김삼순>을 중심으로. 가을철 한국언론학회 발표문.
- 한귀은(2005). 텔레비전 드라마의 상호복제와 복제반동. 《현대문학의 연구》 제 27호.

- Ang, I.(1985). *Watching Dalla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Carriage, K.(1996). Critical ethnographies and the concept of resistance. In M. Morgan & S. Leggett(Eds.), *Mainstream(s) and margins: Critical politics in the 90s*.(pp. 126-142). westport: greenwood Press.
- \_\_\_\_\_(1990). Interpretive media studies and interpretive social science.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7, 81-96.
- Condit, C. (1989). The rhetorical limits of polysem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6, 103-122.
- Fiske, J.(1987). *Television Culture*. New York: Routledge.
- \_\_\_\_\_(1986). Television: Polysemy and popularit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3, 391-408.
- Lewis, J.(1994). The meaning of thing: Audiences, ambiguity, and power. In J. Cruz & J. Lewis(Eds.). *Viewing, reading, listening: audiences and critical reception*(pp. 19-32). Boulder: westview Press.
- \_\_\_\_\_(1991). *The Ideological octopus: An exploration of television & its audience*. New York: Routledge.

않았다. 이 드라마에는 현실세계 다수의 여성과 닮은 인물, 현실사회 여성의 이상향, 현실사회, 담상적 이상적 여성상 '모두가 존재하는, 양립할 수 없는 이념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이것은 대중성을 지향하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상업적 전략의 하나, 일종의 동거(cohabitation)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캐릭터·에피소드·이야기 전개에 현실감과 용어의 일상성, 장르·감성·이념의 탈경계성으로 인해 자연화되었다. 의도하든 아니든 <내 이름은 김삼순>은 '여성적 관점의 수용'과 '불완전한 배제와 선택'등을 통하여 가부장적 질서를 재생산하기 위한 안전판을 만들어내었다.

이 드라마는 사회적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였다. 대중문화의 특성상 일시적이긴 했지만, 각종 광고에서 '삼순' 이미지가 재생산되고 드라마에서 언급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가하면, '파퇴세'라는 낯설었던 직업도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삼순이 신드롬'이 똥똥하고 똥똥하고 학벌도 내세울 것 없지만 삶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한 캐릭터 특성과는 무관하게 몸짱·요가 열풍속에서 유행되었음을 생각하면, 이 드라마가 기존의 가치체계를 해체하고 전복적인 메시지를 일부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텔레비전의 상업적 속성은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수용자 또한 <내 이름은 김삼순>이 '삼순'이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점을 들면서 기존 드라마와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수의 수용자들은 그녀의 캐릭터가 생산하는 이념적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그것이 생산하는 재미와 독특성에만 만족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삼순의 성공은 여성주의의 성공이 아니라 상업주의의 성공으로 연결된다. 미디어라는 거대권력은 페미니즘조차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공고화를 위해 흡수해버렸다.

- Morley, D. (1993). *Family Television: cultural power and domestic leisure*. British Film Institute.
- \_\_\_\_\_. (1992). *Television, audiences and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 O'shea, A. (1989). Television as culture: More than just text and readers. *Media, culture and Society*, 11, 373-79.
- Shudson, M. (1987). The new validation of popular culture: Scene and sentimentality in academia.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4, 51-68.
- Zettle, H. (1981). Television Aesthetics. in Richard Adler (ed.), *Understanding Television: Essays on TV as a Social and Cultural force*. New York: Praeger Publishers.